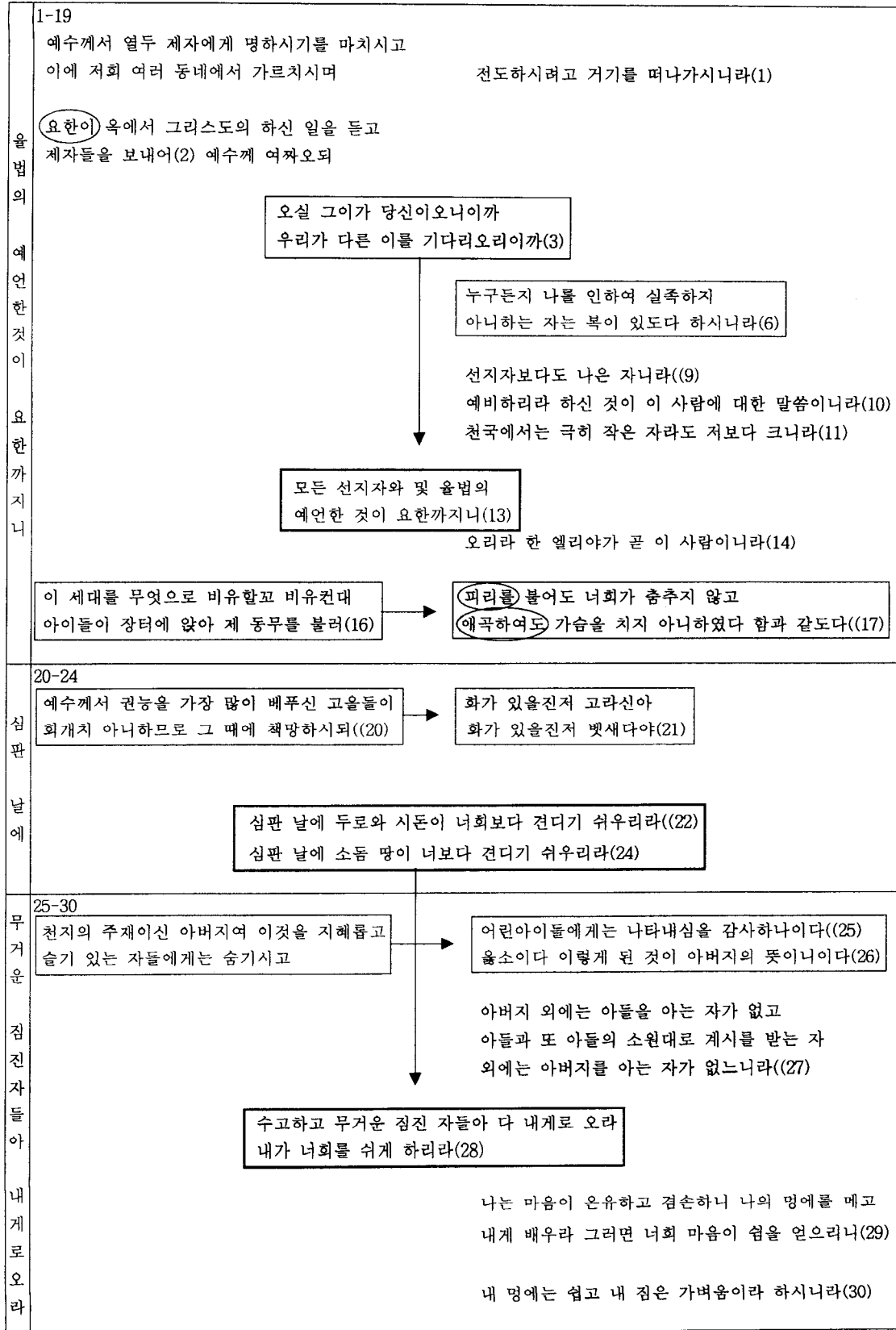


마태복음 11장 개관도표
 주제 : 율법시대의 마침과 복음시대의 개막



마태복음 11장, 율법시대의 마감과 복음시대의 개막

요절 :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11장의 중심점은 “율법시대가 끝나고, 복음시대가 개막”(13)되었다는데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중에서 제자들을 주님께 보내어,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3) 하는 의외의 질문을 하는 것을 대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하여 주님은,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13) 하고, “율법시대를 마감하고, 복음시대가 개막”되었음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복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28) 하고 초청을 하십니다. 이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간혀있던”(갈 3:23) 자들을 “쉬게 하리라”는 복음초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30)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가히 혁명적인 “개혁”이라 할 것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1-19)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둘째 단원(20-24) 회개치 아니함을 책망하심

셋째 단원(25-30)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첫째 단원(1-19)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2).

① “예수께서 열 두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리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1). 이 때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질문하는 문맥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가? 이는 세례 요한의 사명과, 그리스도의 사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 단원을 상고할 때에 초점을 요한의 의심에다 맞춰서는 아니 됩니다. “요한의 한일과,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어떻게 다른가에 두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②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3) 하고 묻습니다. 이 질문을 두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부정적으로 보면, “당신이 그리스도요, 아니요” 하고 의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음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이 질문을 계기로 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기록한 목적이 전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후자, 즉 그리스도의 사역이 요한의 사역과 어떻게 다른가를 드러내기 위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③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앓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4-6). 이것이 요한의 질문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끝이신 것이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간 후에 이에 대한 해설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④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9하) 하십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게 대한

말씀이니라”(10) 하십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선지자가 예언한(사 40:3) “길 예비자”라고 말합니다. ㉠ 이런 의미에서 요한은 선지자보다 나은 자였던 것입니다. ㉡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11상) 하십니다. ㉢ “오리라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14) 하십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보라 여호와 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말 4:5) 하고 예언했는데, 요한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의문을 제기함으로 이 특권을 상실한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보다 나은 자

㉠ 그런데 주님은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11하) 하십니다. 이 “그러나”가 “율법시대와, 복음시대”의 분기점(分岐點)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13) 하고 경계선(境界線)을 긋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율법과 복음의 경계인(境界人)이었던 것입니다. 그 경계인의 갈등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는 질문으로 표출이 된 것입니다.

㉢ 이 같은 경계인의 갈등은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막 10:37) 하고 구한 것이나, ㉤ 주님의 승천을 앞두고도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행 1:6) 하고 질문한 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는 이런 경계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온전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대교회가 복음 편에 확고하게 서 있지 못하고 “율법과 복음의 경계”에서 머뭇거리고 있지 아니한 가 우려되는 바입니다.

㉥ 그렇다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11하) 하신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가는 자명해졌다 하겠습니다. 이는 구약시대의 성도들보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더욱 복됨을 나타내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구약의 성도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히 11:40) 합니다.

㉦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를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16-17) 하십니다. 이는 비유를 통해서 요한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해주고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유대의 어린이들은 “장레식놀이와, 잔치놀이”를 하며 놀았습니다. 잔치놀이는 피리를 불면서 춤을 추는 흥겨운 놀이였고, 장레식놀이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애곡하는 놀이입니다. 이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장레식놀이”에 비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잔치놀이”에 비유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잔치놀이와 장레놀이

㉧ “장레놀이와, 잔치놀이”의 비유의 이미지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18-19) 하신 말씀에서도 드러남

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와 요한의 차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5하), 하신 “복음”(福音)과,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13) 하신 “율법”(律法)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교권주의자들은 이 둘 모두를 배척했다는 말씀입니다.

②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놀이를 해야 하는가? 어떤 분은 성급하게, “장례식놀이”(율법)는 끝내고 잔치놀이(복음)를 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순서와 조화(調和)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즉 장례식놀이를 거쳐서 잔치놀이를 접어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애곡(哀哭)을 하는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겔 37:2) 한 것을 보여주신 것이 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두 다 “애곡하고, 애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됨을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형선고를 받은 집안 분위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압축하면 나 자신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자신을 발견하고는 애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롬 3:20) 하신 뜻입니다.

③ 앞에서 인용한 에스겔서를 보면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겔 37:10) 합니다. 이는 율법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만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장례집이 잔치 집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죽은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요 11:39) 한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요 12:2) 하고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④ 그러므로 주님은,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22:2) 하고, 복음을 잔치에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宴會)를 베푸시리니”(사 25:6) 하고 복음시대를 “연회”라고 예언한 성취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유대인의 결례(潔禮)”, 즉 율법의 규례를 따라 손님들의 손을 씻기 위해서 마련된 돌항아리의 물을, 잔치 집에 초대를 받은 자들이 즐기도록 극상품 “포도주”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잔치놀이를, 장례놀이”의 잣대로 재단하려 하다보니 요한에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점을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12) 하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대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③ 이제 생각해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장례놀이(율법)와 잔치놀이(복음)는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먼저는 “죄 값은 사망이라” 하신 장례집의 애통, 즉 회개운동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롬 7:24) 하는 부르짖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하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잔치 집의 기쁨과 환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일이 없었다면 어찌되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거기에는 죽음에 대한 애곡도 없고, 다시 살아난 잔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현대교회의 실상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율법을 통하여 애통해본 자만이 복음의 환희를 아는 것입니다.

둘째 단원(20-24) 회개치 아니함을 책망하심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 때에 책망하시되”(20).

- ① “화가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가 있을진저 벳새다야”(21상) 하고 책망하십니다. “고라신과 벳새다”는 주님의 초기 사역의 본거지로 삼으신 가버나움 부근의 고을들입니다. 특히 “벳새다”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리 벳새다 사람이라”(요 1:44) 한 베드로의 고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 ② 그러므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이었을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회개치 아니하므로 “화가 있을진저” 하는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대조해서 말씀하시는 “두로와 시돈”은 항구 도시로 사신우상과 부도덕으로 구약시대로부터 책망의 대상이 되었던 (사 23:1, 겔 26:2) 도시들입니다.
- ③ 책망의 핵심은, “심판 날”(22, 24)에 있습니다.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22하),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24) 하십니다. 특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23상)는 표현입니다. 가버나움은 주님이 사셨던 “본 동리”(9:1)입니다. 가버나움은 어떤 의미로는 “하늘까지 높아질” 만한 은총을 입은 고을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개치 않음으로 음부까지 떨어지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여,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사 14:12) 한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책망은 고라신 벳새다에 국한 된 말씀이 아니라, 복음을 배척하고 자고하는 자들이 심판 날에 당할 예표적인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단원(25-30) 무거운 짐 진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그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25).

- ① 25-27절은 주님과 아버지와의 교제(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뜻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25상) 합니다. 무엇에 대한 대답이란 말인가? 세례 요한의 의혹, 본 동리 가버나움의 불신앙 등에 대한 “대답”(對答)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냉대를 인하여 실의(失意)에 빠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하나이다”(25하) 하고 대답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웁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26) 하고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경우에서도 “대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천지의 주재자”가 “아버지”(25중)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해답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누가 대답을 제공해 줄 것입니까? 이 대목에서 주님은 “내가 그 답을 알고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 ②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25중)이었던 것입니다. 12사도들의 신분을 보십시오. 또한 주님 곁으로 모여온 “세리와 죄인”(19)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고전 1:28)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 ③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27상) 하십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니, 이 말씀에는 주님의 답답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12사도들과, 심지어 세례 요한까지도 “주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하고 의문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대답”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아들을 아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문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서도 “대답”할 수 있는 자입니다. “감사하나이다” 할 수 있는 자입니다. 현대교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는 데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님이 누구인가? 그 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가 하는 복음을 제쳐놓고 있다는데 만병의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들을 모르면,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27하) 한, 아버지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히 1:3)이시기 때문입니다.

문제에 해답을 가지고 있는 자

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28상) 하십니다. 그렇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이 누구인가? 모든 인류를 가리킨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반적인 관념(觀念)만을 말하고 넘어가려 해서는 아니 됩니다. 지금 주님은 세상적인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진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해결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기근, 질병, 가난 등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세움 받은 기관이 아닙니다. 현대교회의 잘못은 교회가 마치 만병통치약을 갖고 있는 양, 기도가 도깨비 방망이 인 양 호도하고 있는데 있지 아니한가 여겨집니다.

②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라는 말씀을 문맥적으로 보면, 복음이 오기 전 율법 하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롬 8:2)이라 말씀하면서, 율법 아래 있는 상태를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간혔느니라”(갈 3:23) 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의 끈고함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결박을 풀어주고 옥문을 깨뜨리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롬 8:2)시켜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주이십니다.

③ 주님께서 당시의 종교지도자들을 향해서 일곱 번이나 “화 있을진저” 하고 책망하시는 2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23:2), 즉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 한다”(23:4)고 말씀합니다.

④ 그렇다면 마땅히 물어야만 합니다. 현대교회는 성도들에게 “쉽”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는가? 성도들의 “명에는 쉽고 가벼운가? 아니면 무겁고 고달픈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배는 잔치가 되고, 성도들은 환희와 감사와 감격, 자유함으로 기뻐 뛰며 찬양하고 있는가? 아니면 과도한 의무를 짊어지우는 교훈적인 설교로 인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자”와 같지는 아니한가? 만일 이와 같다면 이는 신율법주의에 빠진 것이 아닌가 우려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11) 하고 성도의 귀중성을 말씀하십니다. 다음 장에서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12:6) 하십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작은 성도 한 사람도 성전(예배당)보다 큰 자가 되었음을 목회자들은 명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12:42) 하신대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된 것입니다.

⑤ 다시 묻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잔치놀이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장혜놀이를 하고 있는가?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가? 아니면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가? ㉡ 예배시간이 기다려지는가? 아니면 의무감에서

참석하는가? 설교시간이 짧다는 생각이 드는가? 아니면 지루하게 여기는가? ㉔ 전도, 기도, 헌금에 대한 부담이 있는가? 아니면 늘 아쉬운 마음인가? 바리새인들 같은 외식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점검해보아야만 합니다.

㉕ 28-30절 말씀을 처음 대하는 심정으로 받으십시오. 초청하는 주체(主體)는 “내게로 오라” 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목적(目的)은 “쉬게 하리라” 하신 “안식”에 있습니다. “쉬게 하리라, 쉼을 얻으리라” 하고 거듭(28, 29) 말씀하십니다. 어떤 기관, 단체, 심지어 신학적인 지식이 “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은 “내가”, 곧 그리스도 자신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 자신을 만나서 “쉬”를 얻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㉖ “나의 멍에”(29중)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전에는 율법의 멍에 하에 있던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멍에와, “나의 멍에”가 어떻게 다른가? 바울은 할례를 받으려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갈 5:1) 하고 경계합니다. 율법의 멍에는 “종의 멍에”입니다. 초대교회 종교회의에서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행 15:28) 하고 이방인들을 종의 멍에에서 자유케 해주고 있습니다.

㉗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멍에가 없단 말인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멍에는 있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십니다. 그 멍에가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의 멍에입니다. 은혜의 멍에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갈 5:13) 하신 “사랑의 멍에”입니다. 이 멍에는 팔복의 사람들만이 멜 수 있는 멍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메는 멍에입니다. 사랑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벼운 것”입니다. 아멘.